



# Issue Brief [No.2]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발행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발행일 : 2015. 11. 6. 발행인 : 현혜순

## 제주지역 3040 워킹맘 고통지수 개선방안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 Contents

#### I. 서론 / 2

1. 논의의 필요성 / 2
2. 연구방법 / 3

#### II. 워킹맘 지원 관련 법·제도 현황 / 3

#### III. 제주지역 여성 일·가정생활 우선도 및 취업장애 요인 / 4

1. 제주 여성 일·가정생활 우선도 / 4
2. 제주 여성 취업 장애요인 / 5

#### IV. 조사결과 / 6

1. 조사개요 / 6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7
3. 일·가정양립에 대한 워킹맘 고통지수 조사결과 / 9
4. 워킹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욕구 / 20

#### V. 워킹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 22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 제주지역 3040 워킹맘 고통지수 개선방안

손태주(제주여성가족연구원)

## I. 서론

### 1. 논의의 필요성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30~40대 워킹맘<sup>1)</sup> 들의 일·가정생활 병행에서 가정, 직장, 사회생활 및 개인의 삶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정도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그들의 일·가정양립 고통지수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 정부의 워킹맘을 지원하는 법률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이 대표적임
  - 워킹맘 지원 법률에 근거한 각종 휴직제도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정책은 일하는 부모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워킹맘들은 일·가정양립 갈등이 큼
- 2014년 기준 제주지역 여성의 고용률은 59.2%로 전국보다 높지만 육아휴직 신청자 중 남성은 4.1%에 불과, 여전히 육아와 가사부담은 여성의 일로 집중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제주 지역의 기업은 10곳에 불과함
- 제주여성 취업자 비율은 서비스 종사자(22.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5.4%), 판매종사자(14.0%), 사무종사자(13.3%) 순으로 높음(통계청, 2014).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직종에 근무하는 워킹맘들의 고통지수<sup>2)</sup>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1) '워킹맘(working mom)'은 그대로 번역하면 '일하는 엄마'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기르는 엄마인 여성들을 통칭함. 국립국어원(2010)은 외래어인 '워킹맘'을 '직장인 엄마'로 선정했으나 언론 및 매체 등 한국사회에서는 워킹맘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2) '워킹맘 고통지수'는 자녀를 가진 일하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음. 워킹맘 고통지수가 높을수록 워킹맘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나타냄

## 2.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제주지역 워킹맘 일·가정양립에 대한 워킹맘 고통지수를 파악하는 데 있음. 주요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기존 워킹맘 지원 관련 법·제도 현황과 제주지역 여성 일·가정생활 우선도와 취업장애 요인 등 자료를 검토
  -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직종 중 육아와 자녀양육 등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층인 30~40대 워킹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함

## II. 워킹맘 지원 관련 법·제도 현황

- 워킹맘 지원 관련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이 대표적임
- 정부의 근로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확대는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007.12.21.)로 전문 개정되어 모성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2007.12.14)에 근거,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 병행이 가능하도록 기업의 가족친화제도<sup>3)</sup>와 동법 제15조에 의거 ‘가족친화기업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할 목적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남성의 적극적 참여’와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3) 가족친화제도는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등의 제도를 말함. ‘탄력적 근무제도’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제 등,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후직제 등, ‘근로자 지원제도’: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양육과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권장함
  - 2014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총 10개<sup>4)</sup>임
- 제주지역 여성의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 인지도를 살펴보면, 산전후가제도(80.9%), 육아휴직제(73.3%), 배우자출산휴가제(68.6%)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42.8%)와 가족돌봄휴식제(35.8%) 등에 대한 인지도는 낮음(제주특별자치도, 2014)<sup>5)</sup>
- 이상의 결과 제주지역 워킹맘을 포함한 근로자 복지제도 중심의 일·가정양립 관련 법제도가 정착되어 가족친화적 사회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시민 및 행정기관 등의 협력을 통한 일과 가정생활 양립이 가능한 사회 환경 조성이 필요함

### Ⅲ. 제주지역 여성 일·가정생활 우선도 및 취업장애 요인

#### 1. 제주 여성 일·가정생활 우선도

- 제주 여성 43.7% 가정생활보다 일을 우선시
- 제주지역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우선 정도
  - ‘일을 우선시’<sup>6)</sup> 43.7%(남성, 57.0%), ‘가정생활 우선시’<sup>7)</sup> 18.4%(남성, 10.1%)
  - 제주남녀의 일·가정생활 우선도 차는 여성 25.3%p로 남성 46.9%p보다 격차 적어, 남성에 비해 가정생활에서의 육아와 가사의 비중 높을 것으로 보임

4)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청, (주)넥슨네트웍스 2개, 2013년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 3개, 2014년 (주)유한D&S, (주)제이피엠엔지니어링, (주)제주항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개 지정받음

5) 제주특별자치도, 2014. 「2013 여성가족통계」 자료에서 발췌

6) 일을 우선 시 = (주로 일을 우선시+대체로 일을 우선시) 값임

7) 가정생활 우선 시 = (대체로 가정생활 우선시+주로 가정생활 우선시) 값임

〈표 3-1〉 제주지역 여성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단위: 명, %)

구분	전체	주로 일을 우선시	대체로 일을 우선시	둘 다 비슷하다	대체로 가정생활 우선시	주로 가정생활 우선시
전체	100	21.2	24.9	39.8	9.3	4.7
여성	100	16.4	43.7	27.3	47.9	12.8
남성	100	25.4	57.0	31.6	32.8	6.3

주: 제주특별자치도.2014. 「2013 제주여성가족통계」

- 제주지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성정책 수요조사 결과
  - 여성 55.4%, 남성 35.1%로 일·가정양립이 어렵다고 응답
  - 5점 척도<sup>8)</sup>로 어려움 정도를 질문한 결과, 연령별로는 30대(3.65점)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가 3.78점으로 가장 어렵다고 응답함(고지영, 2015)<sup>9)</sup>
  - 즉, 제주여성의 고용률이 높고 가정생활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생활 변화에 따라 영유아 자녀를 가진 워킹맘의 일과 가정생활양립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됨

## 2. 제주 여성 취업 장애요인

- 제주 여성 취업 장애요인은 육아부담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제주 여성 취업 장애요인은 육아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1년 72.9% → 2013년 73.4%로 0.5%p 증가하였고, 전국 평균 대비 3.0%p 높았음
- 자녀 연령에 따른 취업 여성의 육아부담 감소를 위한 지역의 가족친화기업 확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제도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남성의 육아참여 등 양성평등 문화 인식 개선 필요

8) 5점 척도 : 1전혀 어렵지 않다 ~ 5 매우 어렵다

9) 고지영, 2015. 「2015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표 3-2〉 제주지역 여성 취업 장애요인(복수응답)

(단위: %)

		사회적 편견 및 차별적 관행	여성의 직업의식 책임감 부족	불평등한 근로여건	일에 대한 여성의 능력 부족	구인정보를 구하기 어렵다	육아부담	가사부담	기타	잘 모르겠다	
제주	2011	전체	38.0	13.8	30.9	6.5	6.5	70.9	39.9	0	4.6
		여성	37.7	11.4	30.6	5.5	7.1	72.9	42.6	0	4.7
		남성	38.4	16.3	31.1	7.7	5.8	68.8	37.1	0	4.5
	2013	전체	39.9	11.3	27.8	4.3	4.9	71.1	45.7	0	8.2
		여성	37.2	9.0	30.3	4.0	4.8	<b>73.4</b>	47.4	0	7.0
		남성	42.6	13.6	25.3	4.6	4.9	68.7	44.0	0	9.4
전국(2013)		여성	38.6	10.2	30.7	4.3	6.7	<b>70.4</b>	44.9	0.1	6.6

주: 호남지방통계청, 2015.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인용

## IV. 조사결과

### 1. 조사개요

- 본 조사는 제주지역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직종 중 육아와 가사, 직장 생활, 사회생활 영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층인 30~40대 워킹맘들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함
- 조사대상은 조사시점 기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서비스직, 전문직, 판매직,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30~40대의 워킹맘들 중 주요 사업장 및 관공서 협조를 통한 편의 추출방법을 통해 선정하였음
  -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자기기입식 배포조사법으로 최종 302부를 수집 분석함
  - 조사기간 : 2015년 10월 15일 ~ 22일
- 조사내용은 2014년 여성가족부와 여성신문사가 후원하고 (사)여성·문화네트워크<sup>10)</sup>에서 실시했던 「2014 워킹맘 고통지수 조사」<sup>11)</sup>를 참고함

10) (사)여성·문화네트워크의 조사내용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개인생활 영역 별 각각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전체 값으로 분석 사용됨

11) 여성가족부, 여성신문사가 후원하고 있는 워킹맘 고통지수 조사는 (사)여성·문화네트워크에서 2012년~2014년 간, 매년

- 본 조사에서는 가정생활 영역, 직장생활 영역, 사회생활 영역, 개인의 삶 영역별로 요인분석을 통해 공통문항을 추출하여 각 영역별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사용함
-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표 4-1>과 같음

<표 4-1> 조사 내용

영역	세부항목(문항 수)	
일반사항	거주지, 연령, 혼인상태, 자녀 수, 막내자녀연령 등	
경제활동	종사상 지위, 일의 직종, 직장 규모, 가정소득 책임, 근무시간 및 근로일수	
가정생활(8)	신체적 고통지수(3)	집안 일 몫, 자녀 양육 정도, 퇴근 후 휴식시간
	심리적 고통지수(5)	자녀에 대한 도움 정도, 자녀와의 소통 정도, 자녀에 대한 이해도, 친인척 갈등 등
직장생활(9)	문화적 고통지수(4)	정시퇴근, 주말·야간근무, 인사상 차별, 회식문화 등
	심리적 고통지수(5)	휴가사용, 능력 평가, 업무조정 양해, 동료와의 관계 및 업무 협력 등
사회생활(7)	정책적 지원 고통지수(3)	일과 육아 병행 환경, 일·가정양립 정책적 지원, 지역사회 참여 등
	사회적 정보공유 고통지수(4)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자녀 문제, 자녀 불이익 경험 등
개인의 삶(8)	신체적, 경제적 고통지수(3)	일·가정 병행 신체적 힘듦 정도, 가정경제 도움 안 됨, 일·가정 양립 불만족 등
	정서적, 심리적 고통지수(5)	자녀와 남편의 부정적 지지, 직장 내 평가, 자녀와 일의 갈등 등
정책 욕구	제도에 대한 인지도부, 제도 활용 정도, 필요정책 등	

##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본 조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표 4-2>와 같음
  - 응답자의 연령대는 ‘30~34세’ 14.2%, ‘35~39세’ 32.8%, ‘40~44세’ 32.5%, ‘45~49세’ 20.5%임
  - 막내자녀연령은 ‘만0~2세’ 14.9%, ‘만3~5세’ 28.1%, ‘초등1~3학년’ 20.2%, ‘초등4~6학년’ 11.6%, ‘중학교’ 11.6%, ‘고등학교 이상’ 13.9%임

- 일의 직종은 ‘서비스직’ 24.2%, ‘사무직’ 22.2%, ‘판매직’ 20.5%, ‘공공행정직’ 15.6%, ‘전문직’ 11.3%, ‘관리직’ 1.3%, ‘기타(자영업)’ 5.0%임
-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78.1%, ‘임시직’ 11.3%, ‘일용직’ 2.3%, ‘기타(자영업)’ 8.3%임
- 근무시간은 ‘40시간미만’ 15.2%, ‘40시간 정도’ 46.7%, ‘41~50시간’ 27.8%, ‘51시간 이상’ 10.3%임

〈표 4-2〉 조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 체		구분	전 체			
		빈도수(명)	백분율(%)		빈도수(명)	백분율(%)		
		302	100		302	100		
지역	제주시	271	89.7	일의 직종	서비스직	73	24.2	
	서귀포시	31	10.3		사무직	67	22.2	
연령	30 - 34세	43	14.2		판매직	62	20.5	
	35 - 39세	99	32.8		공공행정직	47	15.6	
	40 - 44세	98	32.5		전문직	34	11.3	
	45 - 49세	62	20.5		관리직	4	1.3	
					기타(자영업)	15	5.0	
혼인상태	기혼	287	95.0		지위	상용직 근로자	236	78.1
	별거	2	0.7			임시직 근로자	34	11.3
	사별	2	0.7			일용직 근로자	7	2.3
	이혼	11	3.6	기타(자영업 등)		25	8.3	
재녀수	1명	59	19.5	종업원 수	1~4인	26	8.6	
	2명	187	61.9		5~9인	37	12.3	
	3명 이상	56	18.5		10~29인	80	26.5	
막내자녀	만 0세~2세	45	14.9		30~99인	49	16.2	
	만 3세~5세	85	28.1		100~299인	33	10.9	
	초등학교 1~3학년	61	20.2		300~499인	19	6.3	
	초등학교 4~6학년	35	11.6	500인 이상	58	19.2		
	중학교	34	11.3	주 근무시간	40시간 미만	46	15.2	
	고등학교 이상	42	13.9		40시간 정도	141	46.7	
			41~50시간 정도		84	27.8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79	26.2	51시간 이상	31	10.3		
	전문대 졸업	109	36.1	주 근무일 수	4일 이하	8	2.6	
	4년제 대학교 졸업	94	31.1		5일	256	84.8	
	대학원 졸업	19	6.3		6~7일	38	12.6	
	무응답	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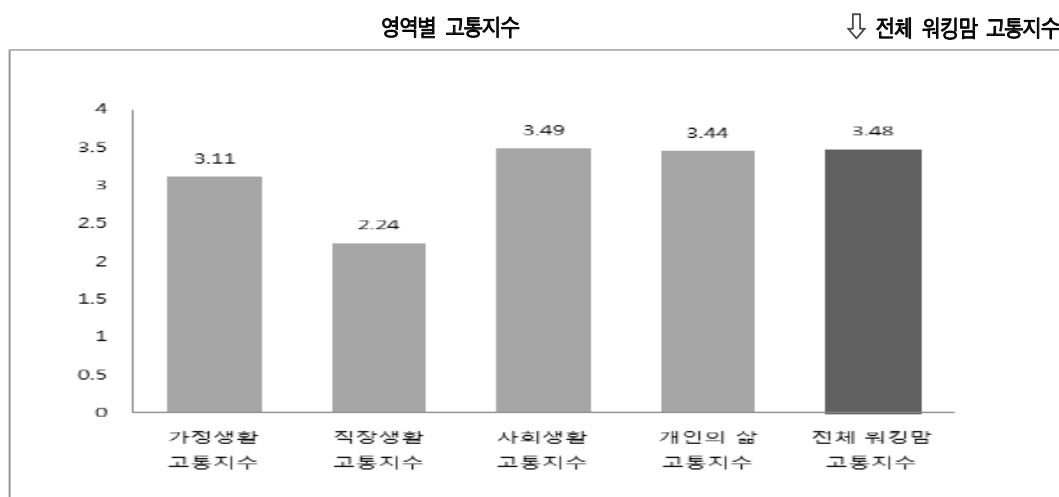
### 3. 일·가정양립에 대한 워킹맘 고통지수 조사결과

#### □ 일·가정양립에 대한 워킹맘 고통지수 및 영역별 고통지수

- 워킹맘 고통지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사회생활 영역’으로 3.49점(5점 척도)<sup>12)</sup>
- 전체 워킹맘 고통지수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3.48점 수준
- 고통지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사회생활’ 영역으로 3.49점임
  - 그 다음은 ‘개인의 삶’ 영역(3.44점), ‘가정생활’ 영역(3.11점), ‘직장생활’ 영역(2.24점)
  - 즉 워킹맘의 고통지수는 직장에서의 일 자체보다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겪게 되는 사회생활의 어려움과 개인의 삶에서 느끼는 주관적 어려움인 것으로 보임

〈그림 4-1〉 일·가정양립에 대한 워킹맘 고통지수 및 영역별 고통지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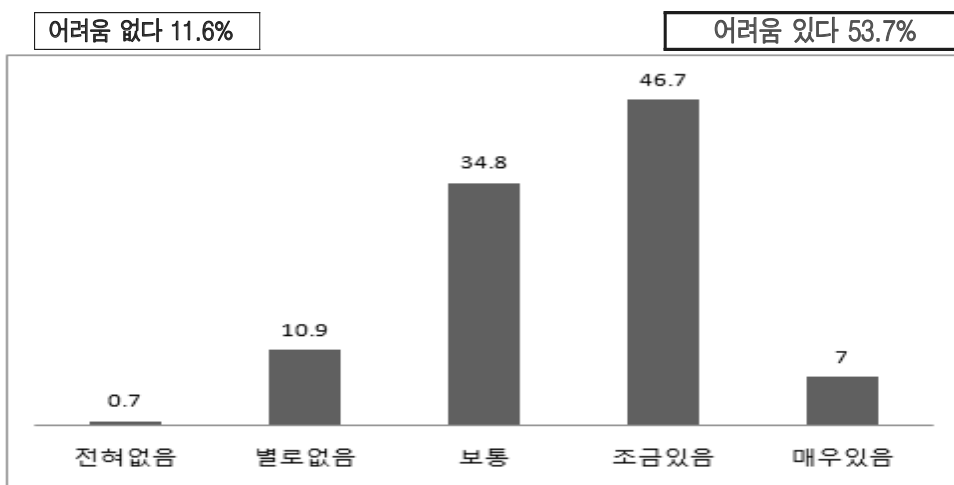
주. 5점 척도(1: 전혀 어려움이 없다 ~ 5: 매우 어려움이 많다)의 평균임(N=302)

12) 5점 척도 : 1 전혀 어려움이 없다 ~ 5 매우 어려움이 많다

- 워킹맘으로서 전반적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있다’는 응답 53.7%로 나타남
- 워킹맘으로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에 대한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어려움이 있다’<sup>13)</sup>는 응답이 53.7%로 ‘어려움이 없다’<sup>14)</sup>는 응답(11.6%)보다 높음

〈그림 4-2〉 일·가정양립에 대한 워킹맘 고통지수

(단위: %)



- 워킹맘 고통지수 정도 ‘전문직’종사자 76.4%로, 막내자녀연령 ‘만0-2세’ 워킹맘 71.1%로 가장 높음
- ‘어려움이 있다(조금 있다+매우 있다)’라고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 일의 직종별 : ‘전문직’ 76.4%, ‘사무직’ 64.2%, ‘서비스직’ 57.5%, ‘관리직’ 50.0%, ‘공공행정직’ 46.8%, ‘판매직’ 37.1%, ‘자영업’ 26.7%
  - 막내자녀연령별 : ‘만0-2세’ 71.1%, ‘만3-5세’ 69.4%, ‘초등1-3학년’ 54.1%, ‘중학교’ 41.2%, ‘초등 4-6학년’ 34.3%, ‘고등학교 이상’ 28.5%
  - 종사상 지위별: ‘일용직’ 57.2%, ‘상용직’ 55.6%, ‘임시직’ 44.1%
- 이상의 결과, 영유아 자녀를 두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일용직에 근무하는 경우의 워킹맘들이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각 직종별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별화된 일·가정양립 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13) 어려움이 있다 = (매우 어려움이 있다+조금 어려움이 있다)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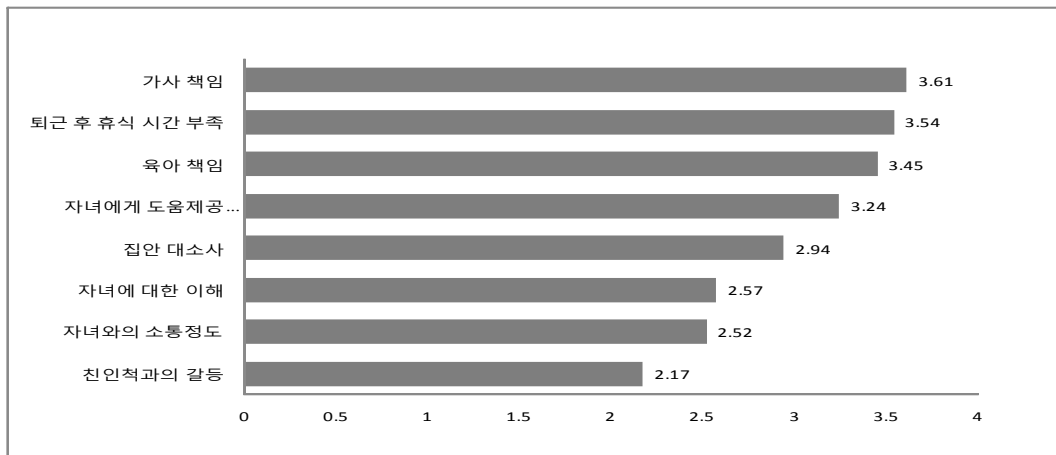
14) 어려움이 없다 = (전혀 어려움이 없다+별로 어려움이 없다) 값임

□ 일·가정양립에 대한 가정생활 영역 고통지수

-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워킹맘 고통지수 ‘가사책임’이 3.61점(5점 척도)으로 가장 높음
- 가정생활 영역에서 가장 고통지수가 높은 것은 ‘가사책임’이 3.61점
  - 그 다음은 ‘퇴근 후 휴식시간 부족’ 3.54점, ‘육아 책임’ 3.45점, ‘자녀에게 도움 제공 부족’ 3.24점, ‘집안 대소사’ 2.94점, ‘자녀에 대한 이해’ 2.57점 등 순임
  - 즉,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고통지수는 직장 일을 마치고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서 휴식 시간도 없이 가사와 육아에 따른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과 자녀들을 제때 도와주지 못하는 것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그림 4-3〉 가정생활 영역 고통지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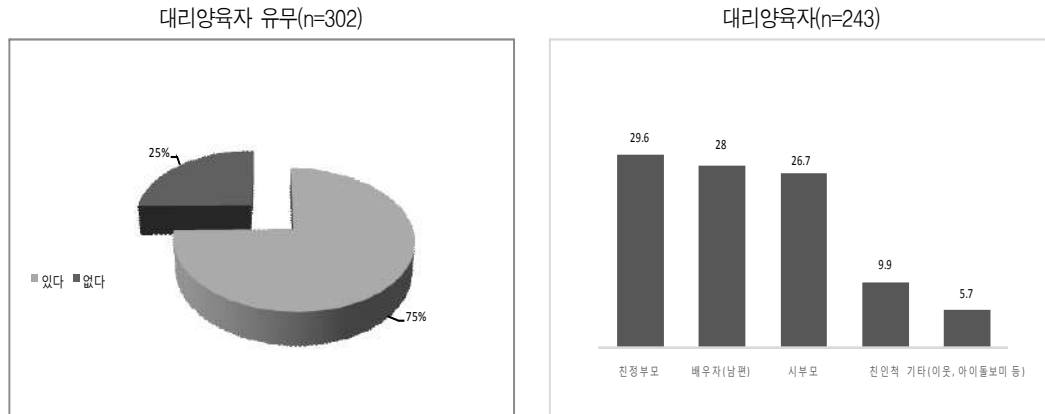


주. 5점 척도(1: 전혀 어려움이 없다 ~ 5: 매우 어려움이 많다)의 평균임(N=302)

- 워킹맘으로서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대리양육자 ‘친정 부모’ 29.6%로 가장 높음
- 긴급하게 일이 생겼을 때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리양육자 유무
  - ‘있다’라는 응답이 75.0%로 ‘없다’(25.0%)라는 응답보다 훨씬 많음
  - 대리양육자 : 친정 부모 29.6%, 배우자 28.0%, 시부모 26.7%
  - 즉 워킹맘들은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면서 심리적으로 편안한 친정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4-4> 긴급한 경우 대리양육자 유무 및 대리양육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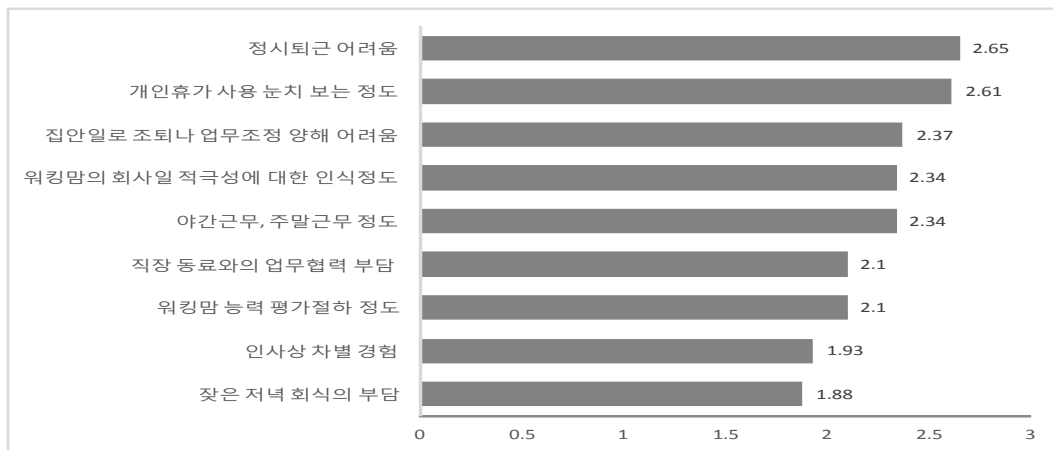


□ 일·가정양립에 대한 워킹맘 직장생활 영역 고통지수

- 직장생활 영역에서 가장 고통지수가 큰 항목은 ‘정시퇴근의 어려움’(2.65점)이나 모든 항목에서 보통점수(3점)보다 낮게 나타나, 직장 내 어려움은 크지 않음

<그림 4-5> 직장생활 영역 고통지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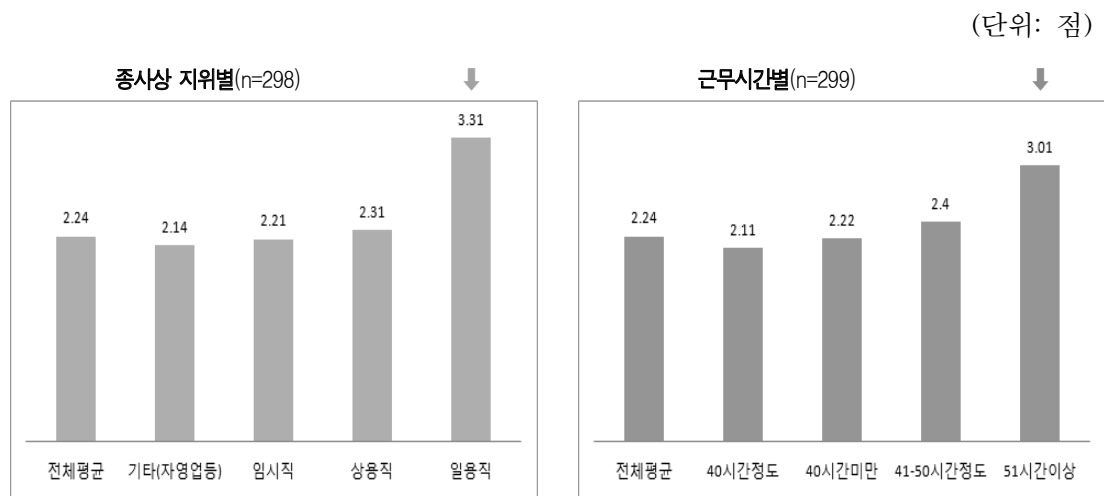
주. 5점 척도(1: 전혀 어려움이 없다 ~ 5: 매우 어려움이 많다)의 평균임(N=302)

● 직장생활 심리적 고통지수 5점 척도 중 ‘일용직’ 3.31점으로 나타남

- 직장생활 고통지수를 직장생활 문화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살펴보면,
  - 종사상 지위별로는 ‘일용직’(3.31점) 종사자가, 근무시간별로는 ‘51시간 이상 근무’(3.01점)가 높게 나타남

- 즉 직장생활 영역 교통지수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지만 근무시간이 많은 근로자인 경우 정시퇴근 어려움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과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종사상 지위에 따른 ‘심리적’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보임(〈그림 4-6〉, 〈표 4-3〉, 〈표 4-4〉 참조)

〈그림 4-6〉 직장생활 하위영역 중 심리적 교통지수



주. 5점 척도(1: 전혀 어려움이 없다 ~ 5: 매우 어려움이 많다)의 평균임

주. 변인 간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표 4-3〉 종사상 지위에 따른 직장생활 하위영역별 교통지수

(단위: 점)

종속변수	세부 영역	n	평균	표준편차	F값	
직장생활 교통지수	문화적 교통지수	상용직	233	2.27	.056	3.176*
		임시직	34	1.86	.74	
		일용직	7	2.14	.83	
		기타	24	1.96	.84	
		전체	298	2.20	.84	
	심리적 교통지수	상용직	234	2.31	.81	3.767*
		임시직	33	2.21	.88	
		일용직	7	<b>3.31</b>	1.38	
		기타	25	2.14	1.01	
		전체	299	.86	.05	

주: \*\*\*p<.001, \*\*p<.01, \*p<.05

〈표 4-4〉 근무시간에 따른 직장생활 하위영역별 고통지수

(단위: 점)

종속변수	세부 영역	n	평균	표준편차	F값	
직장생활 고통지수	문화적 고통지수	40시간 미만	45	1.90	.73	14.922***
		40시간 정도	139	2.01	.72	
		41~50시간 정도	84	2.40	.86	
		51시간 이상	30	2.92	.91	
		전체	298	2.20	.84	
	심리적 고통지수	40시간 미만	46	2.22	.95	12.535***
		40시간 정도	140	2.11	.70	
		41~50시간 정도	83	2.40	.86	
		51시간 이상	30	<b>3.01</b>	.95	
		전체	299	2.30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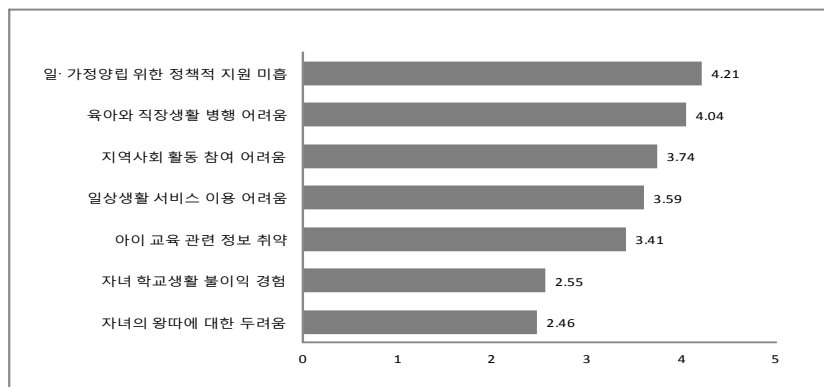
주: \*\*\*p<.001, \*\*p<.01, \*p<.05

□ 일·가정양립에 대한 워킹맘 사회생활 영역 고통지수

- 사회생활 영역에서의 워킹맘 고통지수 ‘일·가정양립 정책적 지원 미흡’이 4.21점(5점 척도)으로 가장 높음
- 사회생활 영역 고통지수는 ‘일·가정양립 정책적 지원 미흡’ 4.21점으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은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 어려움’ 4.04점, ‘지역사회 활동 참여 어려움’ 3.74점,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어려움’ 3.59점, ‘아이 교육 관련 정보 취약’ 3.41점 등 순임
  - 즉 워킹맘들은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데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고 직장생활로 인해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 제도 활용도 제고와 워킹맘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방안 필요

〈그림 4-7〉 사회생활 영역 고통지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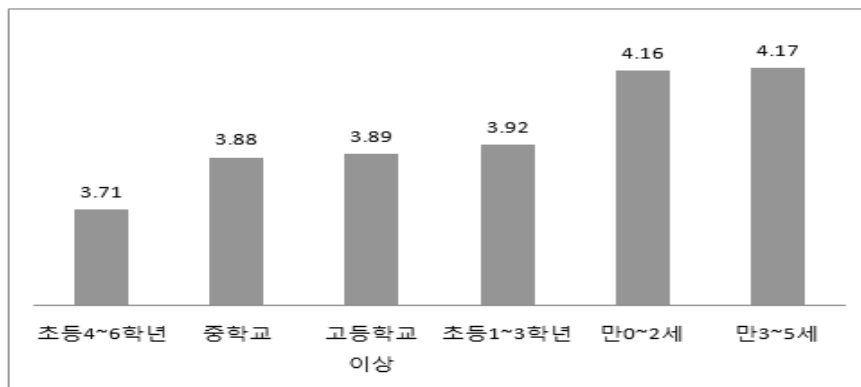


주: 5점 척도(1: 전혀 어려움이 없다 ~ 5: 매우 어려움이 많다)의 평균임(N=302)

- 막내자녀연령 ‘만0-5세’인 워킹맘일수록 사회생활의 정책적 지원 고통지수 더 큼
  - 막내자녀연령별, 사회생활 고통지수를 정책적 지원 요인과 사회적 정보 공유 요인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 ‘정책적 지원’ 요인에서 ‘만3-5세’ 4.17점, ‘만0-2세’ 4.16점, ‘초등1-3학년’ 3.92점, ‘고등학교이상’ 3.89점, ‘중학교’ 3.88점, ‘초등 4-6학년’ 3.71점 순임
    - 즉 영유아 자녀를 둔 워킹맘일수록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 미흡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임

〈그림 4-8〉 막내자녀연령별 사회생활 하위영역 중 정책적 지원 고통지수

(단위: 점)



주. 5점 척도(1: 전혀 어려움이 없다 ~ 5: 매우 어려움이 많다)의 평균임(N=301)

주. 변인 간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표 4-5〉 막내자녀 연령에 따른 사회생활 하위영역별 고통지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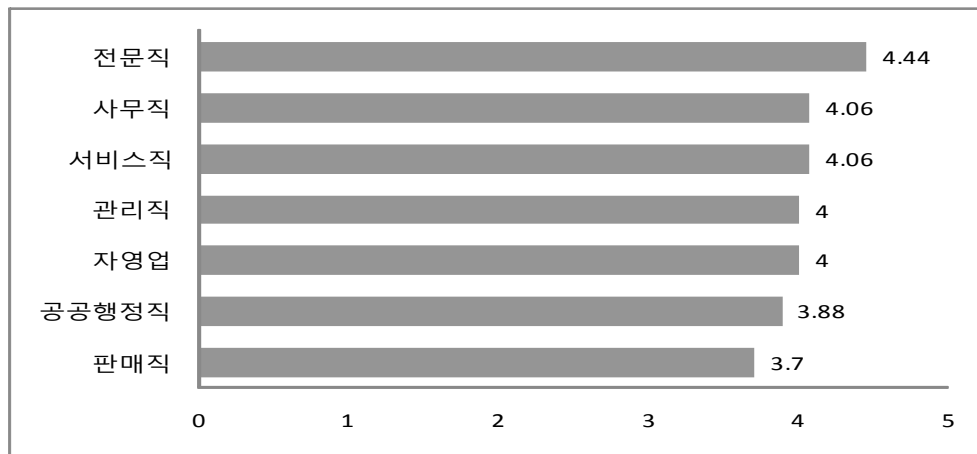
종속변수	세부 영역	n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회생활 고통지수	정책적 지원 고통지수	만0~2세	45	4.16	.50	3.352**
		만3~5세	85	4.17	.56	
		초등1~3학년	60	3.92	.72	
		초등4~6학년	35	3.71	.72	
		중학교	34	3.88	.80	
		고등학교 이상	42	3.89	.87	
	전체	301	4.00	.70		
	사회적 정보공유 고통지수	만0~2세	43	2.90	.81	1.409
		만3~5세	84	3.15	.82	
		초등1~3학년	61	2.98	.81	
		초등4~6학년	35	2.75	.77	
		중학교	34	2.94	.79	
고등학교 이상		41	3.06	.85		
전체	298	3.00	.82			

주: \*\*\*p<.001, \*\*p<.01, \*p<.05

- ‘전문직’ 워킹맘일수록, 근무시간이 길수록 사회생활의 정책적 지원 고통지수 더 큼
  - 일의 직종별, 사회생활 고통지수를 정책적 지원 요인과 사회적 정보 공유 요인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 정책적 지원 요인에서 ‘전문직’ 4.44점, ‘사무직’ 4.06점, ‘서비스직’ 4.06점 등 순으로 고통지수가 나타남(〈표 4-6〉 참조)

〈그림 4-9〉 일의 직종별 사회생활 하위영역 중 정책적 지원 고통지수

(단위: 점)



주. 5점 척도(1: 전혀 어려움이 없다 ~ 5: 매우 어려움이 많다)의 평균임(N=301)

주. 변인 간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표 4-6〉 일의 직종에 따른 사회생활 하위영역별 고통지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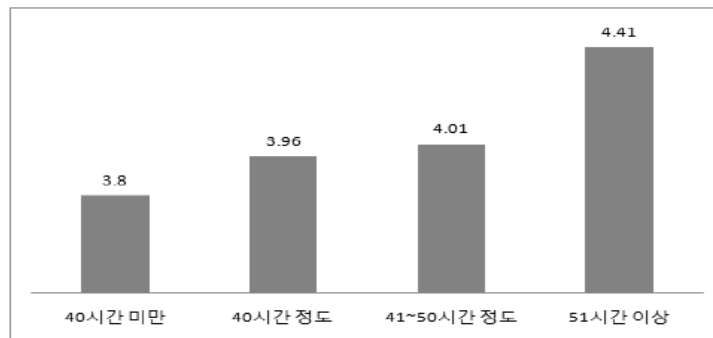
종속변수	세부 영역	n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회생활 고통지수	관리직	4	4.00	.54	4.893***	
	전문직	34	<b>4.44</b>	.53		
	서비스직	72	4.06	.63		
	판매직	62	3.70	.77		
	사무직	67	4.06	.58		
	공공행정직	47	3.88	.75		
	자영업	15	4.00	.86		
	전체	301	4.00	.70		
	사회적 정보공유 고통지수	관리직	4	2.00	.82	2.465*
		전문직	32	3.20	.78	
서비스직		73	3.04	.73		
판매직		61	2.76	.90		
사무직		67	3.09	.70		
공공행정직		46	3.07	.89		
자영업		15	2.93	.97		
전체	298	3.00	.82			

주: \*\*\*p<.001, \*\*p<.01, \*p<.05



- 근무시간별, 사회생활 고통지수를 정책적 지원 요인과 사회적 정보 공유 요인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 정책적 지원 요인에서 ‘51시간 이상’ 4.41점, ‘41-50시간’ 4.01점, ‘40시간 정도’ 3.96점, ‘40시간미만’ 3.80점 순으로 고통지수를 보임
  - 즉 사회생활 영역에서의 워킹맘 고통지수는 사회생활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어려움보다는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여 겪는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워킹맘 관련 제도 활용도 제고 방안 필요

〈그림 4-10〉 근무시간별 사회생활 하위영역 중 정책적 지원 고통지수 (단위: 점)



주. 5점 척도(1: 전혀 어려움이 없다 ~ 5: 매우 어려움이 많다)의 평균임(N=301)

주. 변인 간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표 4-7〉 근무시간에 따른 사회생활 하위영역별 고통지수

(단위: 점)

종속변수	세부 영역	n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회생활 고통지수	정책적 지원 고통지수	40시간 미만	46	3.80	.84	5.253**
		40시간 정도	141	3.96	.64	
		41~50시간 정도	83	4.01	.68	
		51시간 이상	31	<b>4.41</b>	.59	
		전체	301	4.00	.70	
	사회적 정보공유 고통지수	40시간 미만	45	2.71	.98	3.853*
		40시간 정도	139	2.96	.71	
		41~50시간 정도	84	3.12	.77	
		51시간 이상	30	3.27	.99	
		전체	298	3.00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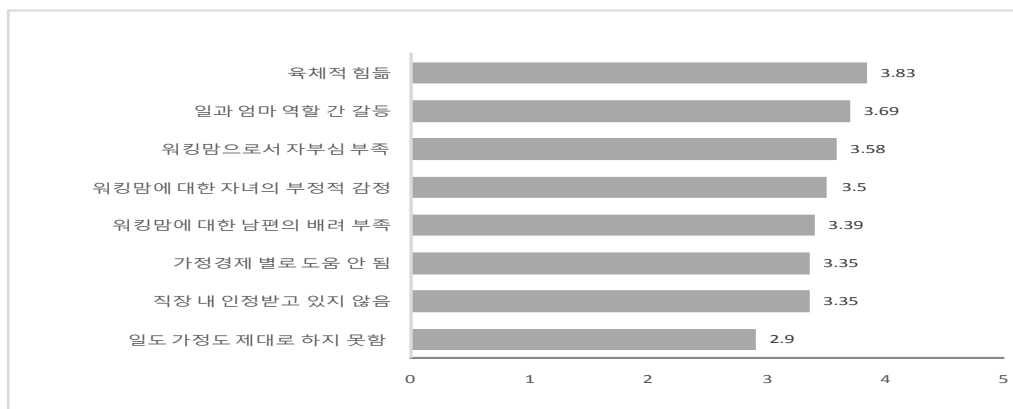
주: \*\*\*p<.001, \*\*p<.01, \*p<.05

□ 일·가정양립에 대한 워킹맘 개인의 삶 영역 고통지수

- 개인의 삶 영역에서의 워킹맘 고통지수 ‘육체적 힘들’이 3.83점<sup>15)</sup>으로 가장 높음
- 개인의 삶 영역에서 가장 고통지수가 높은 항목은 ‘육체적 힘들’으로 3.83점임
  - 그 다음은 ‘일과 엄마 역할 간 갈등’ 3.69점, ‘워킹맘으로서 자부심 부족’ 3.58점, ‘워킹맘에 대한 자녀의 부정적 감정’ 3.50점, ‘워킹맘에 대한 남편의 배려 부족’ 3.39점 순임
  - 이는 일과 가정생활 양립으로 육체적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일과 엄마 역할 간 갈등으로 워킹맘 개인의 주관적 삶에 미치는 어려움인 것으로 보임

〈그림 4-11〉 개인의 삶 영역 고통지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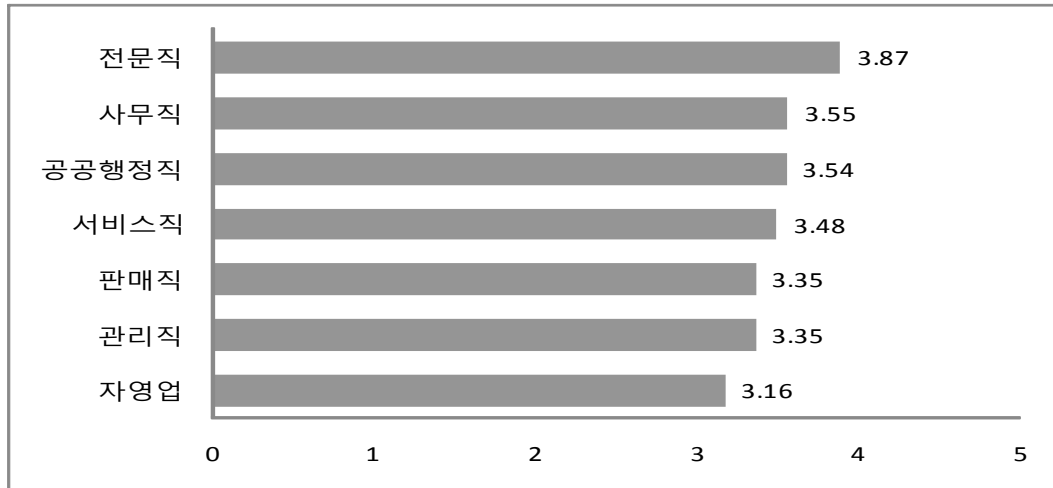
주. 5점 척도(1: 전혀 어려움이 없다 ~ 5: 매우 어려움이 많다)의 평균임(N=302).

- ‘전문직’ 워킹맘일수록 개인의 삶의 정서적·심리적 고통지수 가장 큼
- 일의 직종별, 개인의 삶 고통지수를 신체적·경제적 요인과 정서적·심리적 요인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 정서적·심리적 요인에서 ‘전문직’ 3.87점, ‘사무직’ 3.55점, ‘공공행정직’ 3.54점, ‘서비스직’ 3.48점, ‘관리직’ 3.35점, ‘판매직’ 3.35점, ‘자영업’ 3.16점 순임
  - 즉, 전문직, 사무직, 공공행정직 등 워킹맘들의 개인의 삶 영역에서 정서적·심리적 고통지수가 큰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일의 직종별 워킹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지원 방안 필요

15) 5점 척도 : 1 전혀 어려움이 없다 ~ 5 매우 어려움이 많다

〈그림 4-12〉 일의 직종에 따른 개인의 삶 정서적·심리적 고통지수

(단위: 점)



주. 5점 척도(1: 전혀 어려움이 없다 ~ 5: 매우 어려움이 많다)의 평균임(N=295).

〈표 4-8〉 일의 직종에 따른 개인의 삶 하위영역별 고통지수

(단위: 점)

종속변수		세부 영역	n	평균	표준편차	F값
개인의 삶 고통지수	신체적 경제적 고통지수	관리직	4	3.08	.32	1.929
		전문직	33	3.52	.63	
		서비스직	73	3.51	.78	
		판매직	62	3.22	.87	
		사무직	67	3.45	.73	
		공공행정직	47	3.20	.81	
		자영업	15	3.01	.78	
		전체	301	3.36	.78	
	정서적 심리적 고통지수	관리직	4	3.35	.44	4.479***
		전문직	33	<b>3.87</b>	.49	
		서비스직	71	3.48	.59	
		판매직	60	3.35	.56	
		사무직	66	3.55	.53	
		공공행정직	46	3.54	.54	
자영업		15	3.16	.43		
전체		295	3.51	.56		

주: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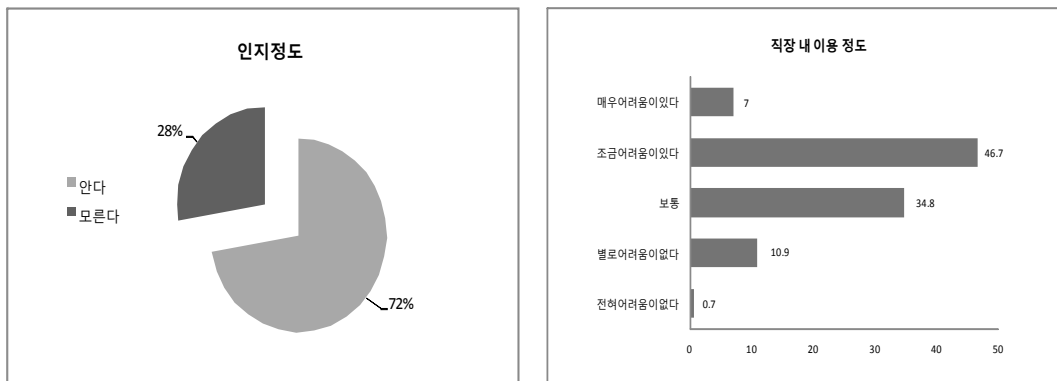
#### 4. 워킹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욕구

#####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관련 법·제도 인지도 및 이용 정도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72.2%’ ‘안다’고 응답했으나, 직장 내 제도 이용 시 ‘어려움이 없다’<sup>16)</sup> 는 응답은 11.6%에 불과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인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배우자(남편) 출산휴가 등에 대한 인지도
  - ‘안다’는 응답이 72.2%로 ‘모른다’는 응답(27.8%)보다 월등히 높음
- 워킹맘 관련 법·제도 직장 내 이용 정도
  - ‘어려움이 있다’<sup>17)</sup> 53.7%, ‘어려움이 없다’ 11.6%(‘보통’ 34.8%)
  - 직장 내 워킹맘 관련 법·제도 활용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3〉 관련 법·제도 인지도 및 직장 내 이용 정도

(단위: %)



주. N=302

##### □ 시간선택제 전환 의향 및 시간선택제 전환 시 걸림돌

- 시간선택제 전환 의향 53% ‘있다’고 응답했으나, 64.8%의 응답자가 시간선택제 전환 시 걸림돌이 ‘전일제 비해 낮은 급여’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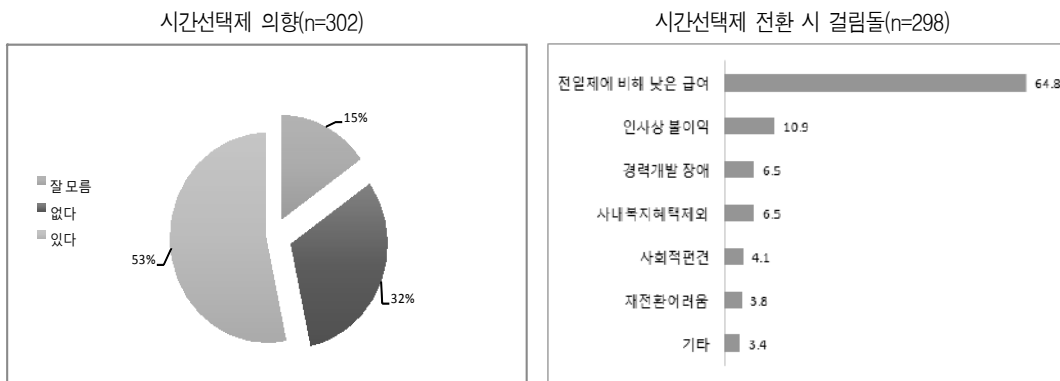
16) 어려움이 없다 : 전혀 어려움이 없다+별로 어려움이 없다

17) 어려움이 있다 : 매우 어려움이 있다+조금 어려움이 있다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이 보장될 경우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의향을 가지고 있지만, 전일제 보다 낮은 급여 등의 이유로 실제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림 4-14> 시간선택제 전환 의향 및 시간선택제 전환 시 걸림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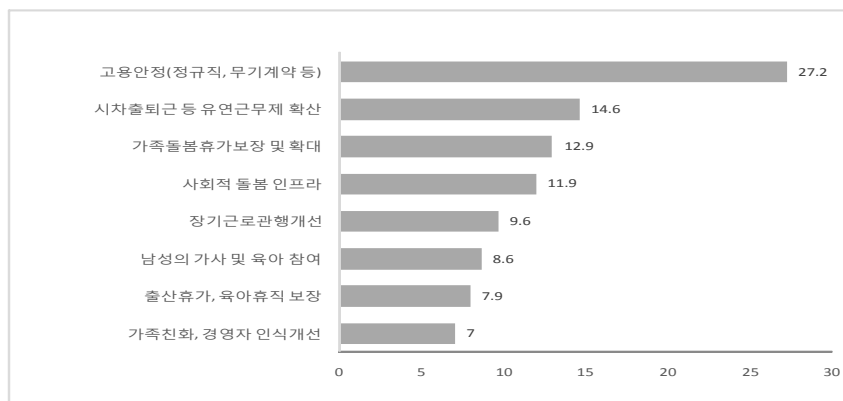


□ 워킹맘의 일·가정양립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

- 일·가정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고용안정’이 27.2%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 확산’ 14.6%, ‘가족돌봄휴가 보장 및 확대’ 12.9% 등 순으로 나타남
- 즉 안정된 고용과 자녀 연령에 따른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 휴가 등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 발달 연령에 따른 육아기 워킹맘의 경력유지를 위한 가족친화 경영이 필요함

<그림 4-15> 워킹맘 일·가정 양립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

(단위: %)



주. N=302

## V. 워킹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 □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 지역 기반 가족친화 정책 확산

- 정부는 워킹맘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동법 제3장 모성보호 조항을 통해 꾸준히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제도를 확대하고 있음
- 이와 함께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기관과 사업주 등의 자녀양육에 관해 여성과 남성의 일·가정양립 지원 위한 가족친화여건을 확산하고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역할과 지역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 필요
- 출산전후 휴가, 부모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위한 대체인력 확보
-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모성관련 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휴가 사용 이후 인사상 불이익 방지를 위한 지역 고용평등상담체계(모성보호 및 대체인력풀 연계 등) 구축
-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근로자의 계약기간 등 지원 제고
- 제주지역 기업에 맞는 대체인력 풀 구성을 위한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 운영 제고
- 기업과 근로자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따른 관련 제도 인식개선 필요

□ 워킹맘 고충상담 지원 서비스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강화

- 본 조사 결과 워킹맘 고통지수는 직장생활 자체로 힘든 것보다는 직장생활에서 오는 업무와 동시에 퇴근 후 휴식시간도 없이 해야 하는 가사와 자녀 양육 등 육체적 힘들과 심리적 어려움에서 오는 것으로, 스트레스 관리법과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필요
- 업무과다와 장시간 근무시간으로 인해 개인적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부족과 가사와 육아 병행에 따른 피곤함의 가중은 워킹맘의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는 게 현실
- 양성평등적 시각에서 남성의 가사·돌봄 참여는 매우 필요
- 기업 내 상담시스템이나 지역고용관련기관 등의 고충상담센터 등 구축
  - 워킹맘의 스트레스 관리법, 자긍심 회복 역량강화 프로그램, 부부·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 활성화로 워킹맘의 경력유지와 사회적 서비스, 심리적 상담 지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631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특별자치도 2청사 2별관

T (064) 710-3482 F : 064-710-3489

Home page : [www.jewfri.kr](http://www.jewfri.kr)